

게 김소영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였음

[제 청 경 위]

-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있어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기간을 종전 1주일 내외에서 2주일로 늘려 대법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였고, 검증기간도 1개월 상당으로 대폭 늘려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충족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검비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음
-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도 대법원장이 제공한 자료 및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수렴한 법원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하게 검토하여 우리 사회의 건전한 시대정신을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청대상 후보자 4명을 추천하였음
- 대법원장은 그동안 수렴한 다양한 의견 및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청렴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제청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바람직한 모습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한 결과, 이러한 인선 기준에 따른 최적격자로서 김소영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게 되었음

-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재판실무와 법률이론에 두루 정통할 뿐만 아니라, 여성 법관 최초로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을 역임하면서 여러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여성 법관들의 롤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에게 필요한 덕목을 고루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여성 법관으로서, 그 가치관이나 철학에 있어서도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할 것으로 기대됨